

‘독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쌍방향적 소통을’

김우창_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 조직위원장



주빈국 행사로서 우리가 계획한 여러 문학 예술 학술 행사기획에 도움을 주고 그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독일과 한국의 여러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행사기간은 며칠 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은 3월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각지에서 열렸던 여러 행사들의 막바지 고비를 이룹니다. 행사 기간 이전부터 여러 문화행사가 계속되었던 것은, 이번의 일이 한국으로서는 지대한 중요성을 가진 문화교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한 미국의 중요한 잡지의 특집 제목은 “지구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지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상호의존적이 됨에 따라,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역사적 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여러 사회의 사람들은 지구가 바야흐로 새로운 미래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특정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은 이제 지구 전체의 지평에 비추어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자주 일어나는 홍수나 한발, 지진 등 사람들의 삶을 뒤집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들은 지역적으로 대비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대처해야 할 일들이면서, 동시에 지구 전체의 기후와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건들입니다. 하필 문제점을 말한 것이지만, 좋은 일에 있어서도 인류 전체가 하나의 연계 관계 속에 묶이고 하나의 세계적인 광장에 모이게 된 것이 최근의 세계사의 단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를 함께 생각함은 물론, 21세기의 새 희망을 실현하는 데에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세계를 산출하고 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 그

리고 경제와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기구와 수단을 통해서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면, 그 세계는 상당히 삭막한 것일 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세계를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 그것의 인간적 의미를 포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문화교류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입니다. 이 내면으로부터의 자기이해, 그리고 상호이해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거주하게 될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독일문화의 대표적 인물들, 가령 괴테나 베토벤, 하이네나 헤르만 헤세 등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이름입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문화교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대체로 한 쪽으로만 흐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이 양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극히 소략한 형태로나마, 독일의 우리 친구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일단을 보이고, 독일과의 문화적 교류가 조금 더 양방향적인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열어 줄 수 있는, 동아시아의 일부를 독일의 지평에 보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미리 배포된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개막식 연설문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사진_ 박신우 기자